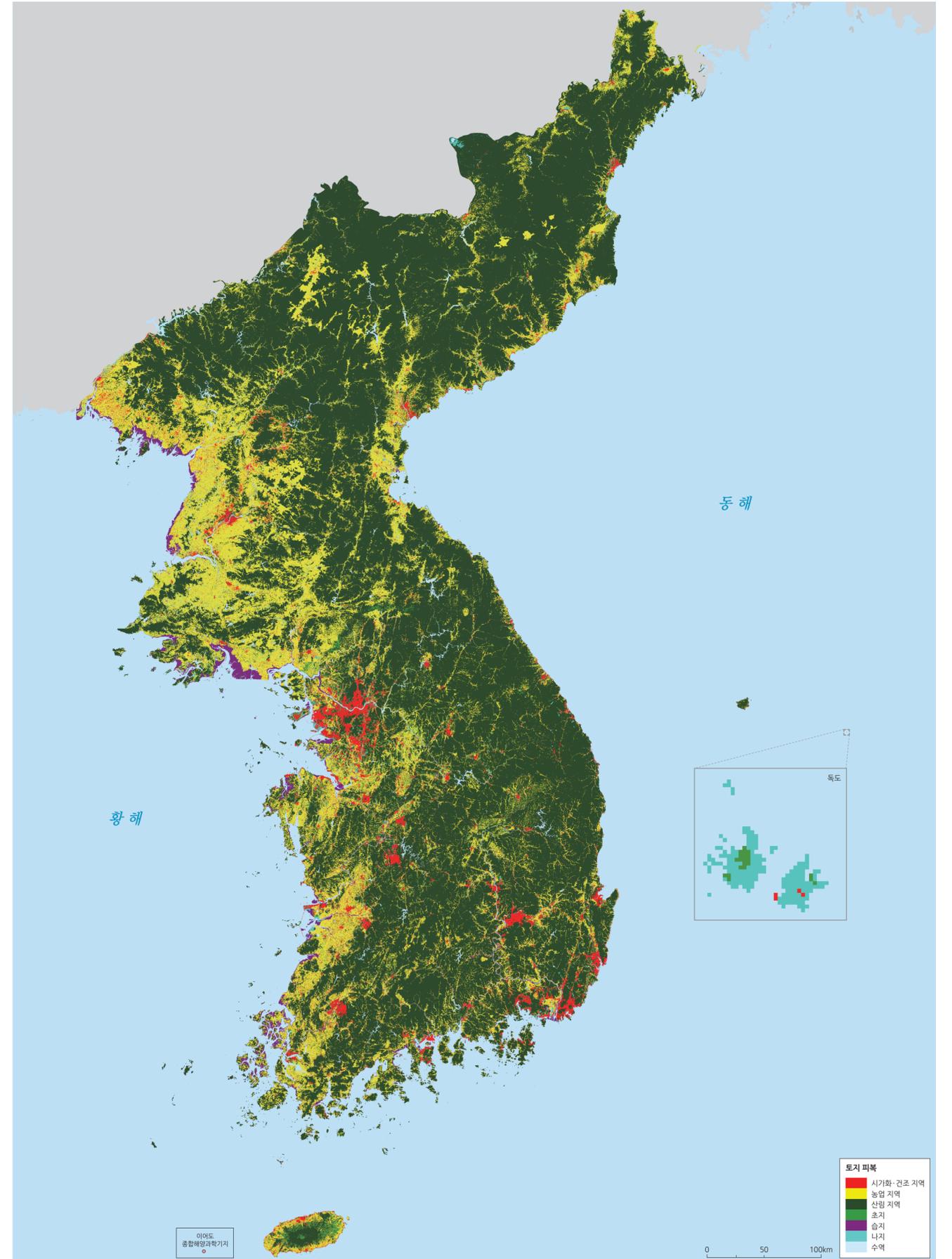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토지 이용의 변화가 있었다. 큰 강과 분지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건설되었으며, 인구 증가와 함께 도시는 점차 확장되었다. 도시와 도시를 잇는 도로와 철도가 건설되었고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고 확장되었다. 식량 생산을 위한 농경지와 가축을 기르기 위한 초지도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야산이 개간되어 밭이 되었고, 밭은 수리 시설이 발달하면서 논으로 변화하였다. 최근에는 수익성 때문에 논을 밭으로 변화시키기도 한다. 해안에서는 새로운 토지를 만들기 위해 바다가 매립되었다. 토지 이용 변화는 다양한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도시와 농경지가 확장되면서 상대적으로 산림은 감소하였고, 산림 감소는 지구 온난화 원인 물질의 증가와 홍수 위험의 증가를 야기하였다. 도시, 도로, 철도 등의 건설로 인해 산림이 파괴되었고, 이는 동·식물이 살아가는 환경을 위협하였다. 대도시 주변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악취와 침출수 등의 환경 문제가 발생하였다. 간척으로 '바다의 밭'이라고도 불리는 갯벌이 감소하였다. 갯벌이 사라지면서 생물 다양성이 저하되고 연안의 재해 위험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토지 피복 지도 또는 토지 이용도를 제작하여 지표면의 상태를 파악하거나 사람들이 땅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연안 지역에서는 공유 수면 매립으로 파괴되었던 해양 생물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해 기초 조사를 시행하고 지속해서 그 상태를 관찰하고 있다. 대도시 주변의 쓰레기 매립장은 공원으로 조성하여 악취와 침출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를 만들어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 규제 정보를 일반에 제공함으로써 친환경적 토지 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토지 이용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한의 총면적은 약 10만 km²이고, 북한의 총면적은 약 12만 km²이다. 환경부의 2010년대 말 대분류 토지 피복 지도에 의하면 남한의 시가지·건설 지역 면적은 북한에 비해 약 2배 넓다. 월드뱅크에 의하면 2016년 기준 남·북한의 경작지 면적은 각각 총 토지 면적의 14.5%와 19.5%를 차지한다. 반면 총 토지 면적에서 영구 경작지 비율은 남한에서 2.3%이고, 북한에서 1.9%이다. 남한의 산림 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의 63.4%를 차지하고, 북한의 산림 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의 40.7%를 차지한다. 한반도에서는 높은 산이 동쪽과 북쪽에 치우쳐 있고 서쪽은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고 경사가 완만한 지형들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농업 지역은 서쪽에 주로 분포하고, 산림 지역은 북쪽과 동쪽에 분포한다.

한반도 대분류 토지 피복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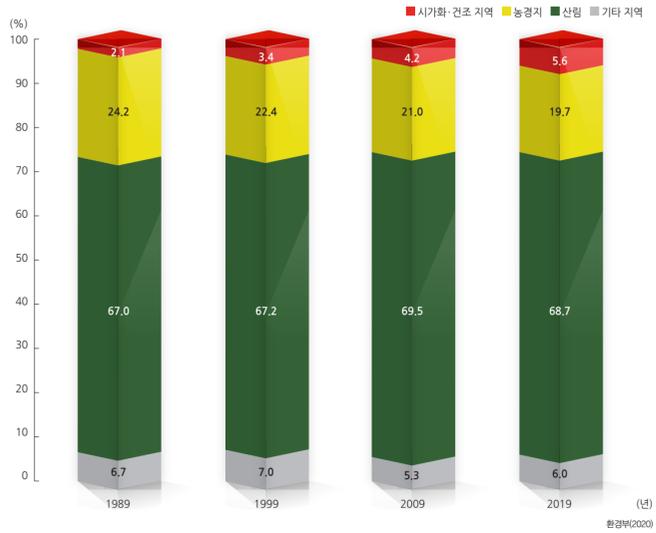
대분류 토지 피복 변화

우리나라의 토지 피복 지도는 환경부에서 제작하며, 이 지도에 의하면 1975년 이후 남한의 시가지 지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다. 1980년대 말 남한의 시가지 지역은 전체 토지 피복의 2.1%를 차지하였고, 2010년대 말에 5.6%를 차지하여 2.7배 증가하였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가지 지역의 확장이 두드러졌다. 이들 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망의 주변에서도 시가지 지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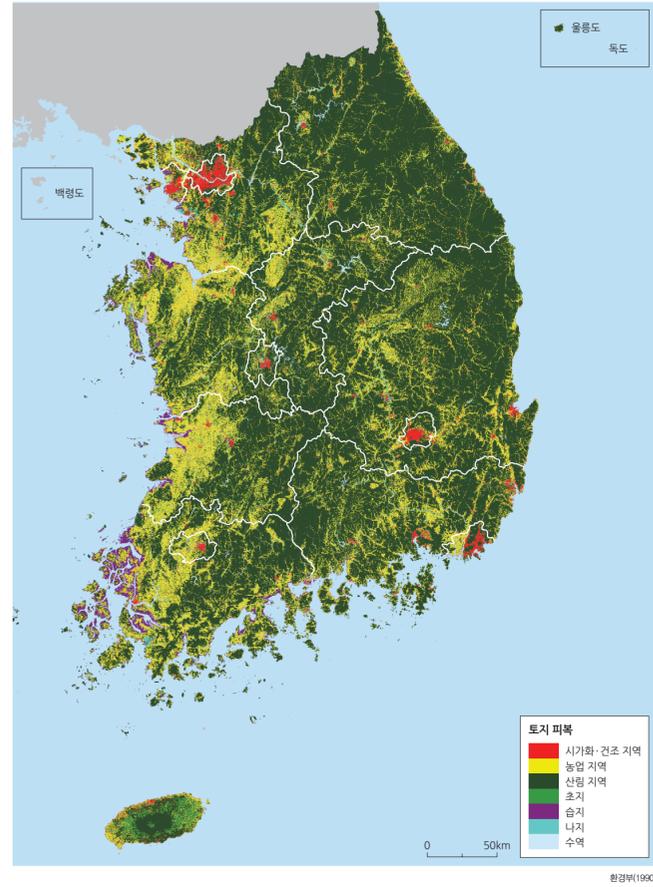
농업 지역 면적은 산지 지역에서는 감소했지만 연안, 평야 및 구릉 지역에서는 증가하였다. 연안에서는 간척으로 농경지가 증가하였으며, 산지에서는 농촌 인구의 감소에 따라 농경지가 감소하였다. 전체 농업 지역 면적은 1980년대 말 27,000km²에서 2010년대 말 22,000km²로 감소하였다.

시가지 지역과 농경지가 증가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산림이 감소하였다. 산림 감소는 지구 온난화와 홍수 위험 증가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산림의 양적 감소로 인한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림의 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림 자원을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보호 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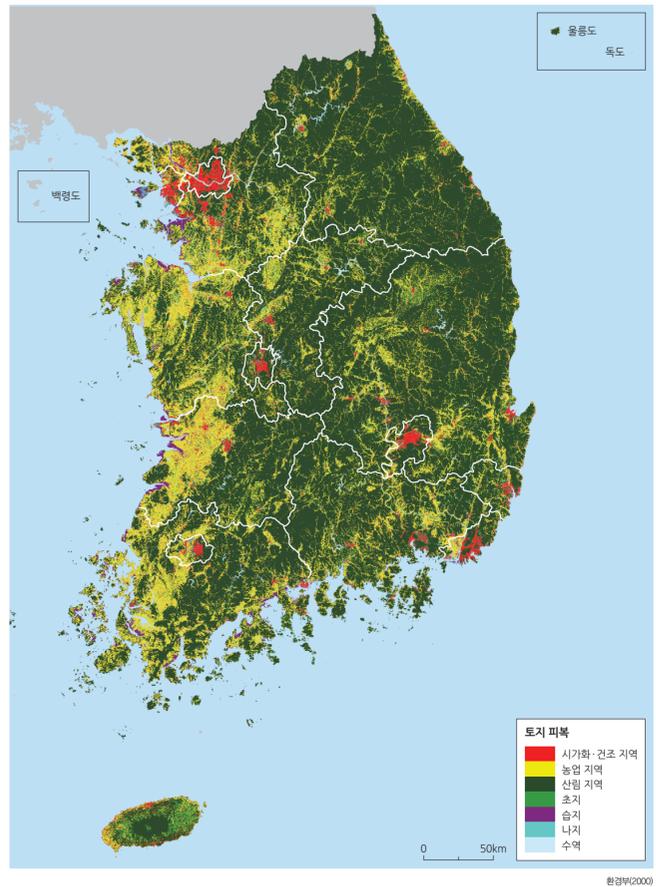
토지 피복의 구성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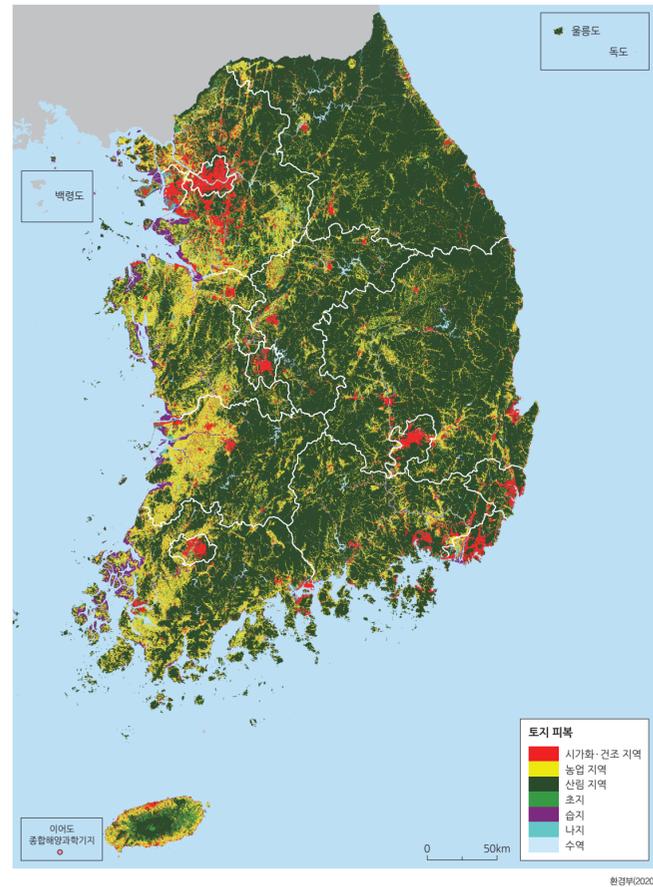
1989년 토지 피복 지도



1999년 토지 피복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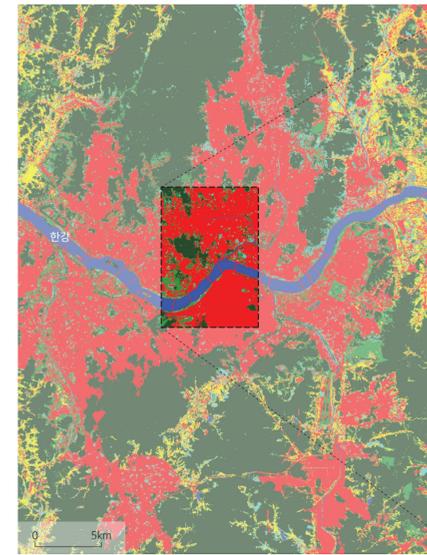


2019년 토지 피복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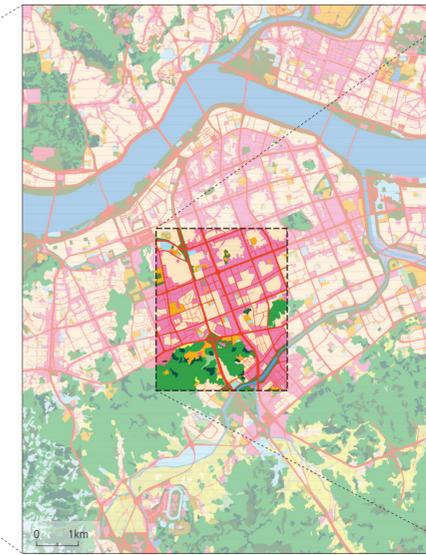


국가 토지 피복 지도의 분류와 주요 토지 이용 형태

대분류 토지 피복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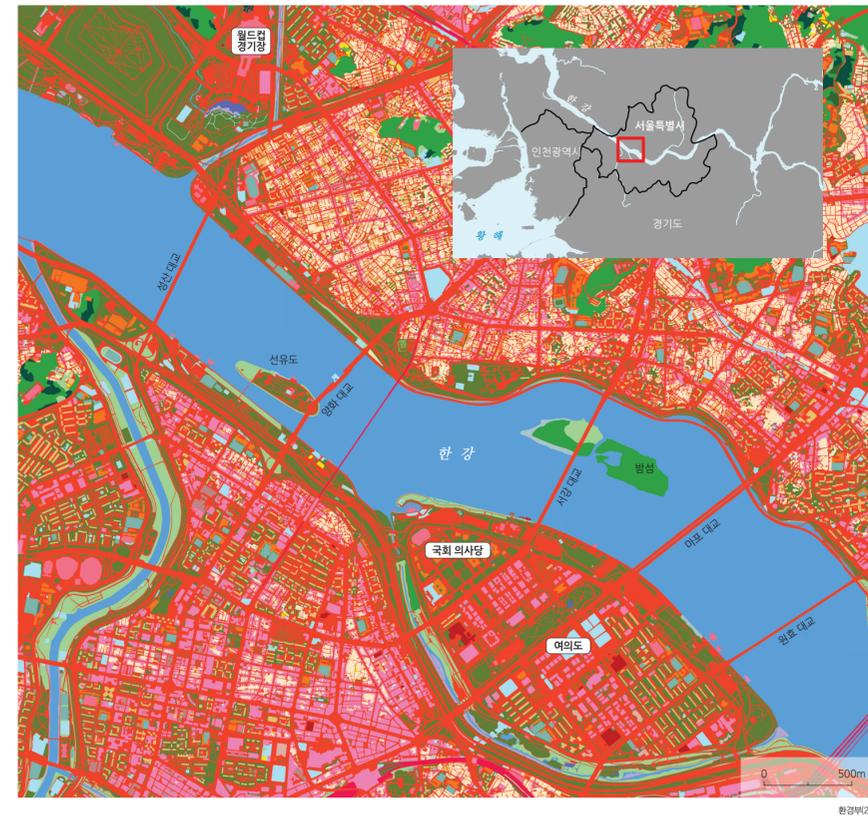
중분류 토지 피복 지도



세분류 토지 피복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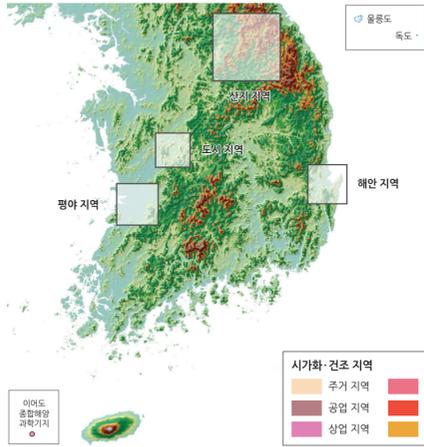
서울의 토지 이용(2010년)



환경부 토지 피복 지도 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시가지·건조 지역	주거 지역	단독 주거 시설
		공동 주거 시설
	공업 지역	공업 시설
		상업 지역
	상업 지역	상업·업무 시설
		혼합 지역
	문화·체육·휴양 지역	문화·체육·휴양 시설
		공항
	교통 지역	항만
		철도
공공 시설 지역	도로	
	기타 교통·통신 시설	
농업 지역	환경 기초 시설	
	교육·행정 시설	
산림 지역	기타 공공 시설	
	논	
초지	경지 정리가 된 논	
	경지 정리가 안된 논	
습지	경지 정리가 된 밭	
	경지 정리가 안된 밭	
나지	시설 재배지	
	과수원	
수역	목장·양식장	
	기타 재배지	
수역	활엽수림	
	침엽수림	
수역	혼효림	
	자연 초지	
수역	인공 초지	
	굴프장	
수역	묘지	
	기타 초지	
수역	내륙 습지(수변 식생)	
	내륙 습지(수변 식생)	
수역	연안 습지	
	갯벌	
수역	염전	
	해변	
수역	자연 나지	
	강기슭	
수역	암벽·바위	
	채광 지역	
수역	인공 나지	
	운동장	
수역	기타 나지	
	내륙수	
수역	호수	
	해양수	
수역	해양수	
	해양수	

출처: 환경부(2010)



우리나라의 주요 곡창 지대 중 하나는 만경평야와 김제평야이다. 이 평야는 만경강과 동진강 하류의 넓은 충적 평야를 일컫으며, 흔히 호남평야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중심에 있는 김제시는 한국의 기초 자치 단체 중 농업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다. 하천 주변의 평야 지역은 주로 논으로 이용되고 있고, 구릉에서는 산림과 시가지·건축 지역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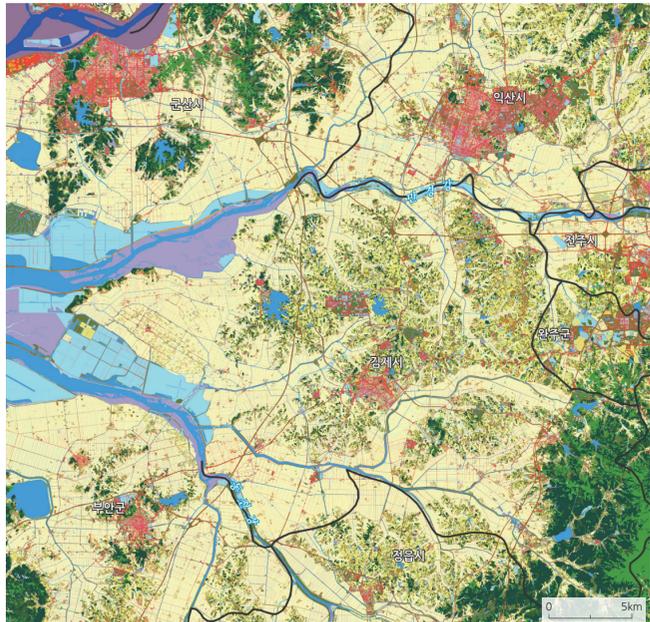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북동쪽은 태백산맥과 그 주변의 험준한 산지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역에서는 많은 하천이 산지 사이를 흐른다. 도로와 농업 지역 등도 이 하천을 따라 발달하였다. 이와 같은 지형적 특징은 사람들의 왕래를 어렵게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변잡한 도시 지역에서 벗어나 산과 강이 어우러진 청정지 또는 휴양지로 인식되기도 한다. 해발 고도 1,000m 내외에서 나타나는 고위 평탄면에서는 고랭

지 채소 재배 지역과 목장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큰 강이 흐르고 침식 분지가 있는 곳에는 도시가 발달하였다. 춘천, 충주, 원주, 대전 등이 그와 같은 지역이다. 이 지역은 하천과 지하수로부터 물을 구하기 쉽고 토양의 배수가 좋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좋다. 하천변의 충적층은 토양이 비옥해 농사를 짓기에 유리하다. 이 때문에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어 도시가 발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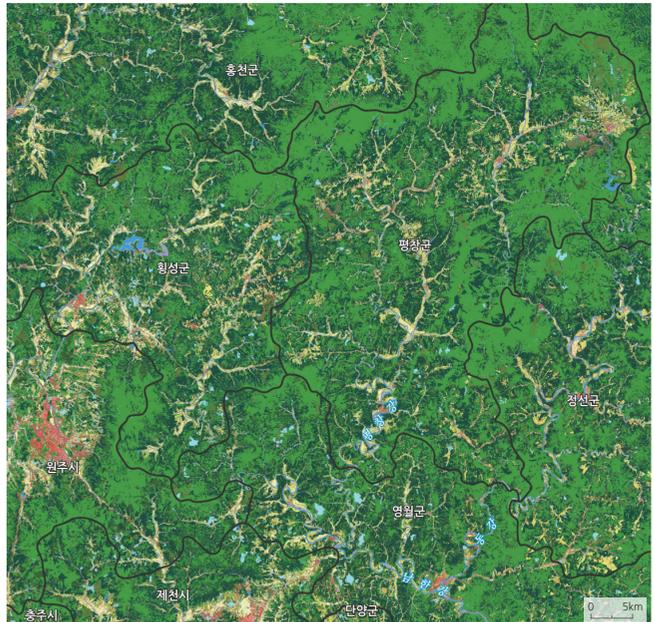
동해안은 태백산맥이 해안과 인접하여 평행하게 놓여 있어 좁은 해안 평야가 나타나며, 만에는 중소 규모의 항구들이 발달하고 있다. 하지만 하천과 해안이 만나는 부분에는 비교적 넓은 퇴적 평야가 발달하기도 한다. 영일만 주변에 위치한 포항시는 1970년대 이후 한국의 대표적인 철강 산업 도시로 성장하여 비교적 넓은 시가지 지역이 나타난다.

시기화·건축 지역	농업 지역	산림 지역	초지	습지	나지	수역
주거 지역	논	활엽수림	자연 초지	내륙 습지(수변 식생)	자연 나지	내륙수
공업 지역	밭	침엽수림	인공 초지	연안 습지	인공 나지	해양수
상업 지역	시설 재배지	혼효림				
공공 시설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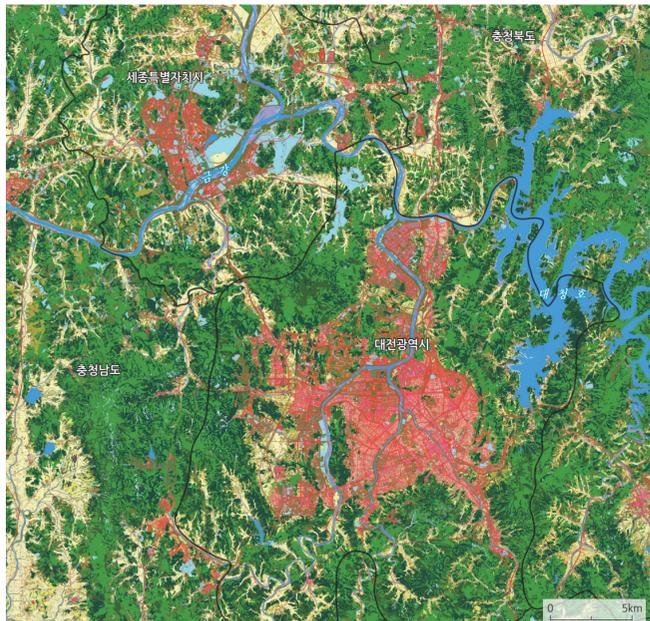
평야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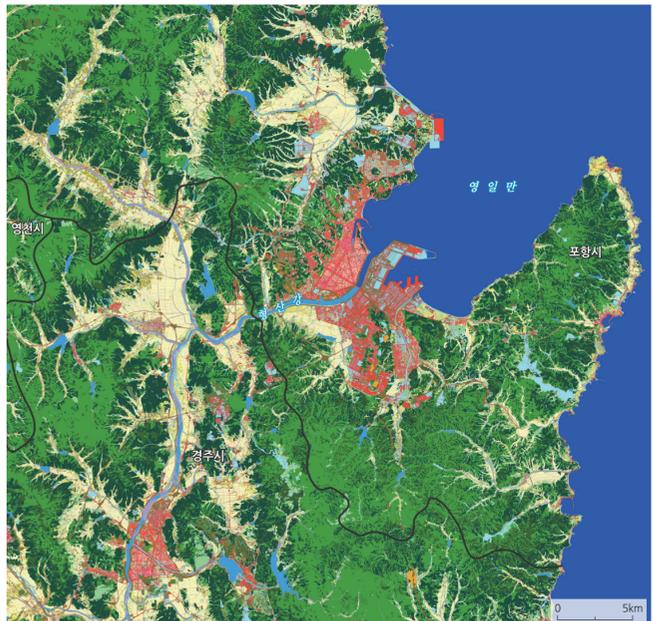
산지 지역



도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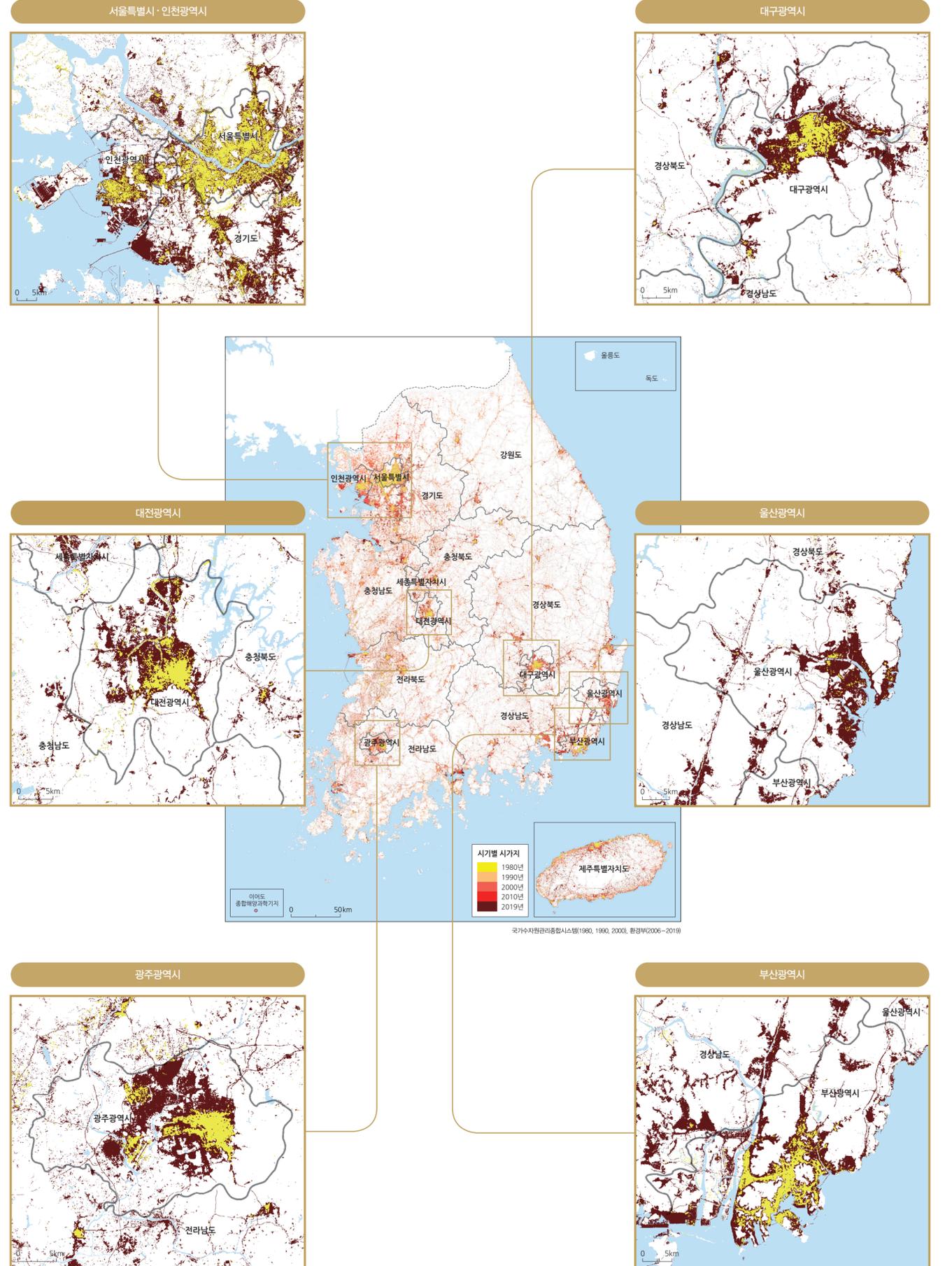


해안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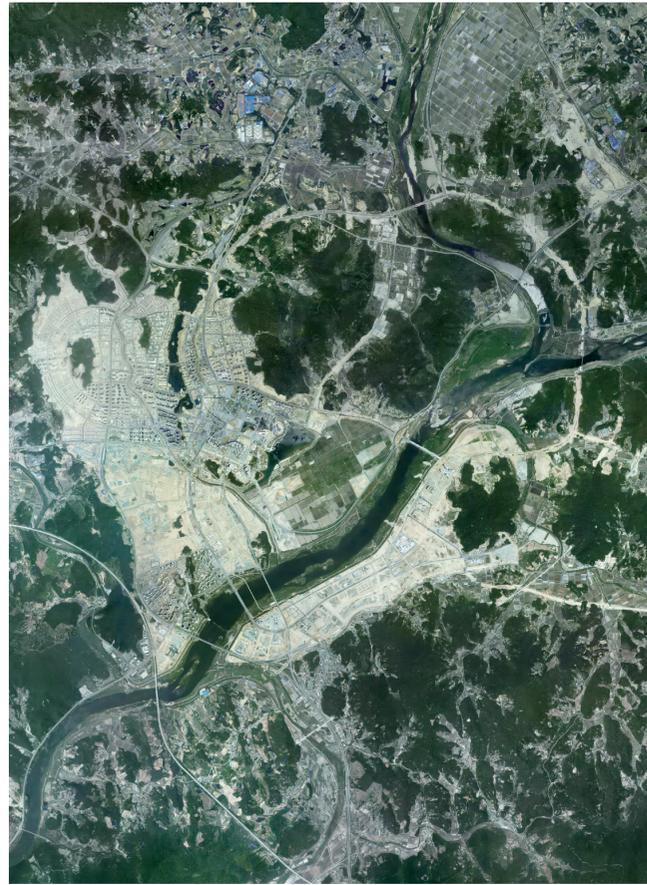


도시의 확장

1980-2010년대 시가지 지역의 확장



세종특별자치시 위성 영상(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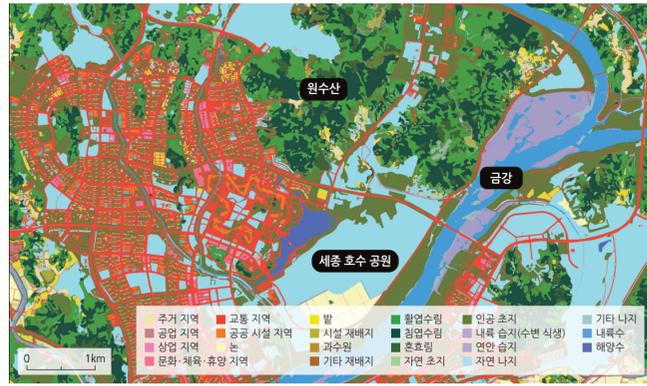
국토지리정보원(2014)

세종특별자치시의 토지 피복(2014년)



환경부(2014)

세종특별자치시의 토지 피복(2019년)



환경부(2020)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행정 중심 복합 도시, 일명 행복 도시가 금강 주변의 약 72.91km²의 범위에 개발되고 있다. 행복 도시의 개발은 국토 균형 발전과 서울의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부터 준비가 시작되었고 2005년부터 계획 수립이 본격화되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는 금강의 북서쪽, 정부청사 주변 지역이 집중적으로 개발되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구릉이 평지화되었으며 세종 호수 공원이 건설되는 등 이 지역의 토지 이용과 경관은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하지만 자연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도시는 환상형 구조로 중심부에 녹지 공간이 조성되고 그 주위에 6개 주요 기능: 중앙 행정, 문화·국제, 도시 행정,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 지식 시설이 배치된다. 계획 지역의 52%가 공원, 녹지, 수변 공간 등으로 설정되고 녹지축과 하천축을 연계한 그린 블루망(Green-Blue Network)이 구축될 예정이다. 약 7km²의 중앙 공원을 중심으로는 각 녹지가 연결되는 폐기형 녹지 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며, 자원 순환 시스템을 도입하여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를 지향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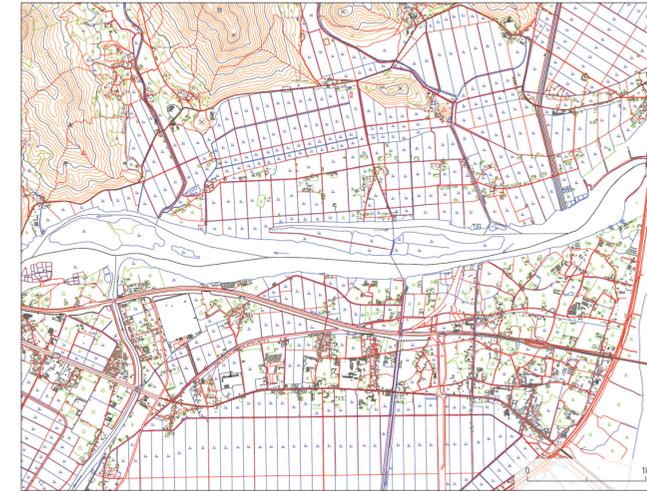
세종특별자치시 항공 사진(2015년)



세종특별자치시(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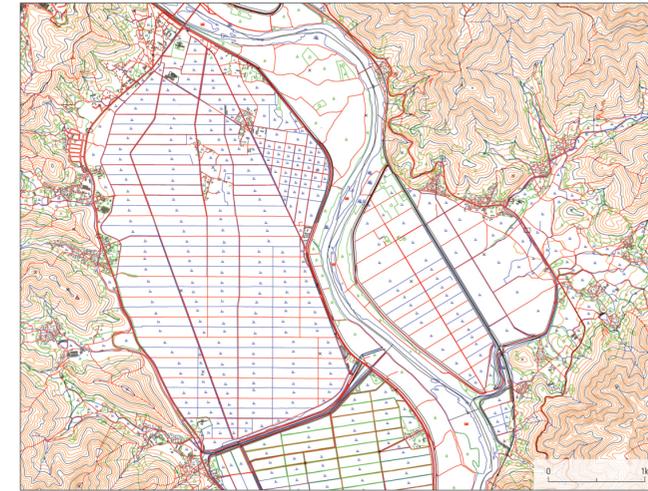
도시 근교의 토지 이용

김해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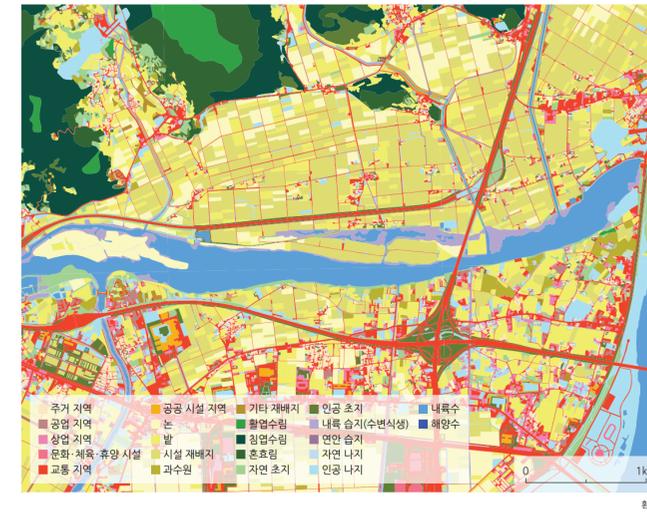
국토지리정보원

밀양 지형도



국토지리정보원

김해 토지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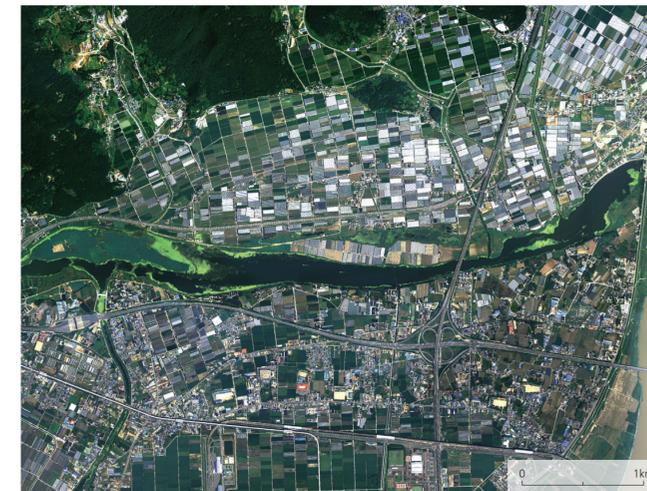
환경부

밀양 토지 이용



환경부

김해 항공 사진



국토지리정보원

밀양 항공 사진



국토지리정보원

시설 제배는 제배 환경을 작물 생육에 알맞도록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모든 종류의 제배 양식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보기 힘들었지만 도시 개발보다 생산성이 높아 1979년 4,971ha(0.23%)에서 2015년 90,468ha(5.39%)로 면적이 증가하였다. 유리온실과 비닐하우스의 설치를 위해서는 자연·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햇빛과 기

온 조건은 작물 생육과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일사량이 많고 난방 부하가 적어야 하며, 산간이 아닌 평지로서 일조시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또한 제배 단지에 상용하는 용수 확보가 가능한 지역이 유리하고, 물 빠짐이 좋은 비옥한 토양이 좋다. 제배단지과 연계된 도로망이 있거나, 집하지 또는 시장과의 거리가 가까운

곳, 공항이나 컨테이너 수송 항구와 가까운 곳이 유리하다. 인근 지역에서 인력 동원이 가능해야 하며, 시설 제배 참여인의 정주권으로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낙동강 중·하류 지역은 논이나 밭에서 시설 제배지로의 토지 이용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표 간척지

우리나라의 서·남해안은 잘 발달한 간척지와 얇은 바다의 리아스식 해안으로, 만 입구의 양쪽 끝 사이는 거리는 짧으면서도 내부 간척지의 면적이 넓어 간척하기 매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고려 시대 및 조선 시대에는 양곡 증산 및 군량미 조달을 위해, 일제 강점기에는 식민지에서의 쌀 증산과 토지 개량 사업을 목적으로 간척이 이루어졌

다. 광복 후에는 기근 해결을 위한 식량 증산 목적으로 소규모 간척이 이루어졌고, 1970년대 이후에는 농업 종합 개발 목적으로, 1990년대 이후에는 다목적 종합 개발로 간척 사업이 추진되었다. 대규모 간척 사업은 해양 생물 서식지를 완전히 파괴하였으며, 육상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은 연안역의 해양 생태계 건강성을 악화시

켰고 다양성을 훼손하였다. 2000년대 이후 훼손된 연안 지역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선진국과 같은 규모가 큰 연안 복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를 통해 소규모의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안 생태계의 생태·사회·경제적 잠재력을 유지하고 복원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지속성을 확보를 아주 중요한 토대이다.



주요 간척지 위성 영상

- 1 시화 지구
- 2 광택 지구
- 3 삼교현 지구
- 4 석촌 지구
- 5 대포 지구
- 6 서산 간척지
- 7 갈매 지구
- 8 새만금 지구
- 9 계곡도 간척지
- 10 영산강 2지구
- 11 영산강 3지구
- 12 해남 지구

지배 세력에 의한 간척(강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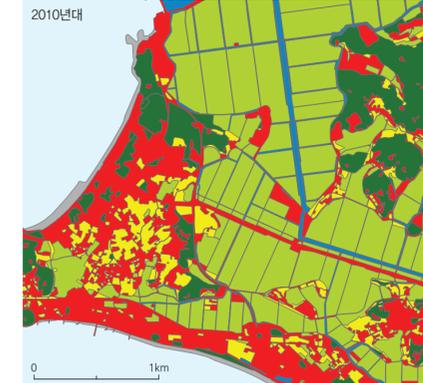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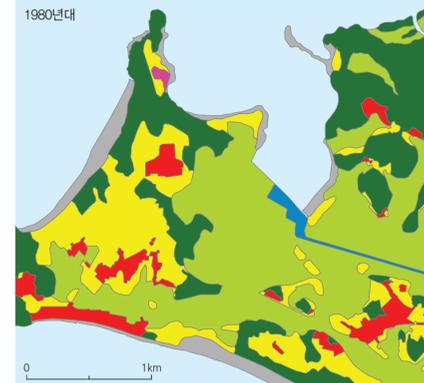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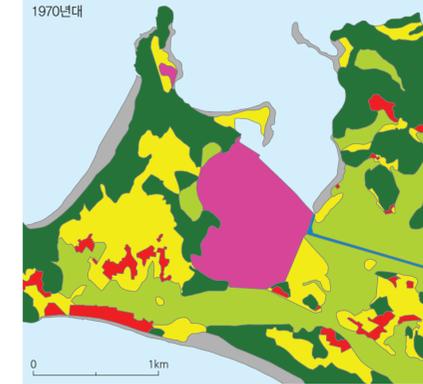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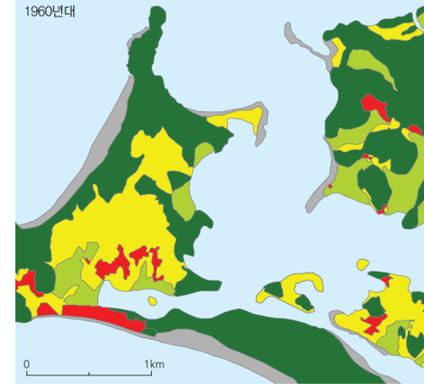
고려 고종 19년(1232년) 몽골군의 침입으로 강화 천도가 단행되자, 이주민들이 급증하면서 이를 부양하기 위한 막대한 식량이 필요하였다. 병란이 장기화되면서 조정은 체계적인 개간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해안 저습지 간척은 그중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다. 고종 43년(1256년)에는 조강 연안의 제포와 와포에 독을 쌓아 좌둔전을 만들고, 염하 연안의 이포와 초로를 막아 우둔전을 만들도록 하였다. 이후 공민왕 때부터는 새로운 공법으로 깊은 갯골까지 막을 수 있게 되어 넓은 간척지가 나타나게 되었고, 대표적인 간척 사업은 교동도 북쪽의 인절포 일대의 영산연 공사이다. 이후 조선 개국 초부터 임진왜란 전까지 약 200년 동안은 대규모의 간척 사업은 없었다. 숙종대에 이루어진 간척 사업은 비포연과 북적연, 가리연 등이 있고, 특히 강화도 남쪽의 선두포연은 강화도 최대 규모의 간척 사업이다. 강화 지역의 간척 사업은 18세기 말에 이르러 일단 완료되었고, 1910년대까지 굴곶포와 초지의 남쪽에 남아 있던 소금밭을 제외하면 개간 가능한 갯벌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이후 20세기에 이르러 현대적 토목 기술을 통해 강화도 남단을 비롯한 일부 해안에서 간척 사업이 재개되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도



인구의 사회적 이동에 의한 간척(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도토리 일대에서는 한국 전쟁 후 피란민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여 간척이 이루어졌다. 1954년에 3-4세대가 이주하였으며 그 후 꾸준히 유입되어 약 100세대가 공유수면 614,876㎡를 간척하는 독막이 공사를 시작하여 1961년에 완료되었다. 조성된 간척지는 완공 후 3년이 지난 뒤부터 농사를 지을 수 있었으며, 이 간척지는 '신간지'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이주민들은 주로 천막에서 생활하면서 독막이 조성에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공사비는 준공 후 값은 조건으로 조합에서 사재를 빌려 조달하였으며, 부족한 채무는 인근 지역 주민에게 토지를 매각하여 충당하였다. 간척 완료 후 채무 반납지를 제외한 토지를 이주민들에게 참여 일수에 따라 차등 배분하였다. 마지막 간척은 부사 지구 간척으로 1980년대 후반 민간 기업에 의해 시작되어 1991년에 완료되었다.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대한민국 최초의 대규모 간척: 서산 간척 사업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독자적 기술을 활용하여 대규모 간척 사업들을 시행하였다. 그중에서 서산 간척 사업은 대한민국에서 민간 기업에 의해 진행된 최초의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1980년 착공하여 1995년 완공되었다. 1984년에 물막이 공사가 끝났는데, 천수만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유속이 빨라 물막이 공사의 막바지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폐유조선을 바다에 가라앉혀 물살을 막고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방조제의 길이는 A, B 지구를 합해 총 7,686m이며, 방조제 건설에 의해 매립된 면적은 15,409ha이다. 서산 A지구에서는 9,626ha, 서산 B지구에서는 5,783ha가 매립되었다. 매립된 지역의 대부분은 농경지로 개발되었고, 이 사업 결과 당시 서산군은 논외 면적이 한국에서 가장 넓은 행정 구역이 되었다. 이 사업에 의해 담수호인 간월호(A지구)와 부남호(B지구)가 형성되었으며, 간월도가 육지와 연결되었다. 굽이 산지로 유명하였던 간월도는 육지와 연결된 후 사람들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다.

간척 사업은 낙후되었던 서산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겨울철 철새들의 서식지로 이용되고 있다. 대규모 농업 지역의 특성상 사람의 접근이 어렵고 기계 영농에 의한 낙곡이 많았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는 겨울에 철새의 서식지가 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철새는 가창오리, 큰기러기, 말뚝가리 등이 있다. 하지만 방조제 건설 후 갯벌을 서식지로 하는 도요새류는 감소하였고, 담수호의 수질은 점차 악화되었다. 현재 담수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산 간척지 물막이 공사(198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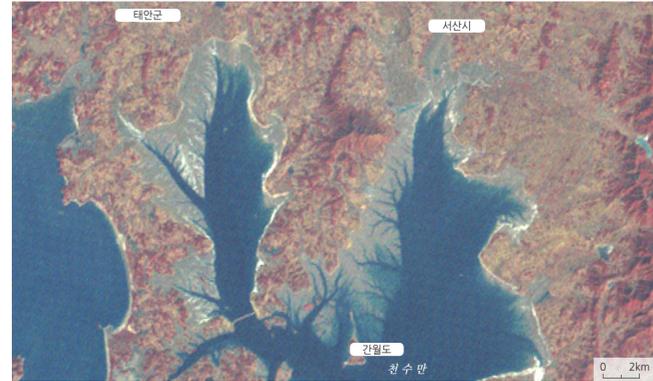


서산 간척지 전경(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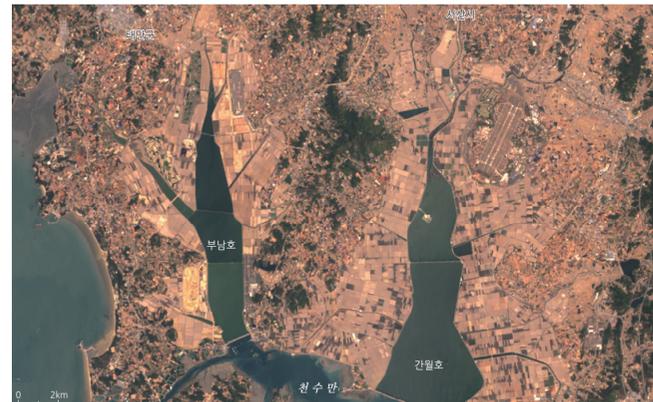


철새의 군무(2011년)

서산 간척지 위성 영상(1983년)



서산 간척지 위성 영상(2020년)



서산 간척지 토지 피복(2019년)



세계 최대 규모의 간척: 새만금 간척 사업

새만금 방조제는 1991년 기공하여 2006년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었다. 방조제의 총길이는 33.9km이며 토지 28,300ha와 호소 11,800ha를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 방조제의 길이는 세계에서 가장 길다. 새만금이라는 이름은 만경평야의 '만'자와 김제평야의 '금'자에 새롭게 확장한다는 뜻의 '새'자를 덧붙여 만들어졌다. 오래전부터 유명한 만경·김제평야와 같은 옥토를 새로 일구어 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새만금의 내부 공간 구조 계획은 1991년 초기 구상 이후 크게 네 번의 수정을 거쳤고, 가장 최근 계획은 2014년 9월에 확정되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산업·연구 용지, 국제 협력 용지, 관광·레저 용지, 농·생명 용지, 배후 도시 용지, 환경·생태 용지 등 총 6가지 용지가 개발될 계획이다.

새만금 사업은 국토 확장, 대규모 우량 농지 조성, 수자원 확보 효과와 관광권 형성을 통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 과정에서 갯벌의 훼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담수 이후의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 종합 계획 현황



새만금 간척지 위성 영상



새만금 간척지 위성 영상(2020년)



연안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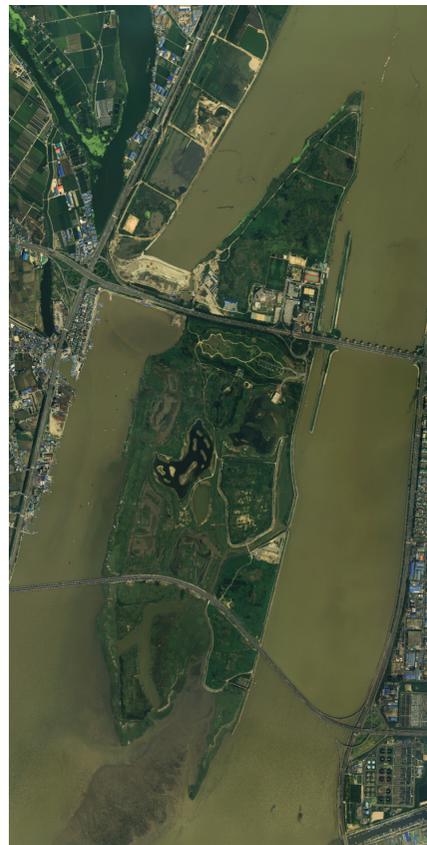
현재의 을숙도는 낙동강 하굿둑 건설 공사를 하면서 따로 떨어져 있던 상단부의 일출도와 하단부의 을숙도가 합쳐지면서 형성되었다. 많은 철새가 도래하여 1966년 7월 13일 천연기념물 179호(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로 지정되었다. 대부분 저습지로 홍수 때는 수몰 위험이 커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으나 율중제가 축조되고 경지 정리 사업이 진행되면서 많은 주민이 입도함으로써 부산의 원에 작물 공급지가 되기도 하였다. 1987년 4월 낙동강 하굿둑 완공으로 섬 전역이 공원화되었고, 사람들의 발길이 많아지자 갈대밭이 훼손되고 철새가 줄어드는 등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되었다. 이에 부산시는 을숙도 개발 계획을 백지화하고 일대를 핵심 보전 구역으로 지정하여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약 6년에 걸쳐 생태계 복원 사업을 추진하여 생태 공원으로 조성하였다.

을숙도 생태 지도



우리강 아름 도우미

을숙도 항공 사진(2012년)



국토지리정보원(2012)

위성 영상



미국지질조사소



을숙도 생태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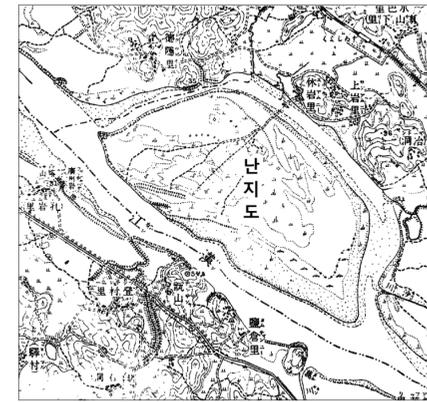
을숙도에 찾아온 철새



을숙도 갈대숲

쓰레기 매립지의 관리

난지도 매립지의 과거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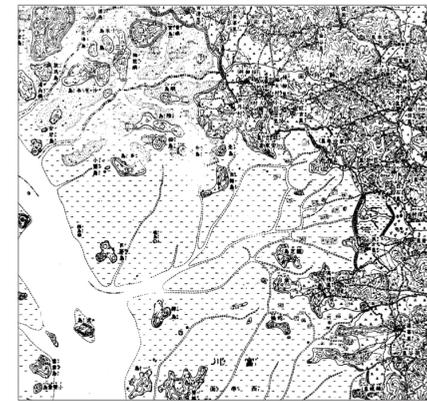
난지도 매립지 매립 모습

난지도 매립지 침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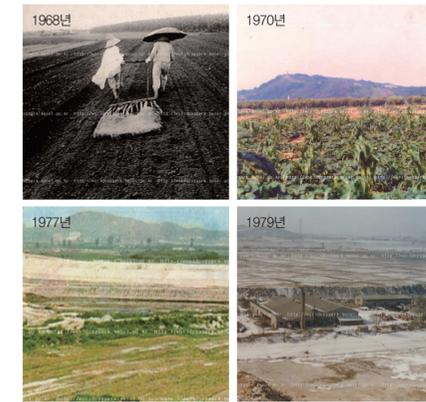


매립지 복토 후의 난지도

수도권 매립지의 과거 모습



난지도의 변화



노을 공원 전경



하늘 공원 전경

환경부(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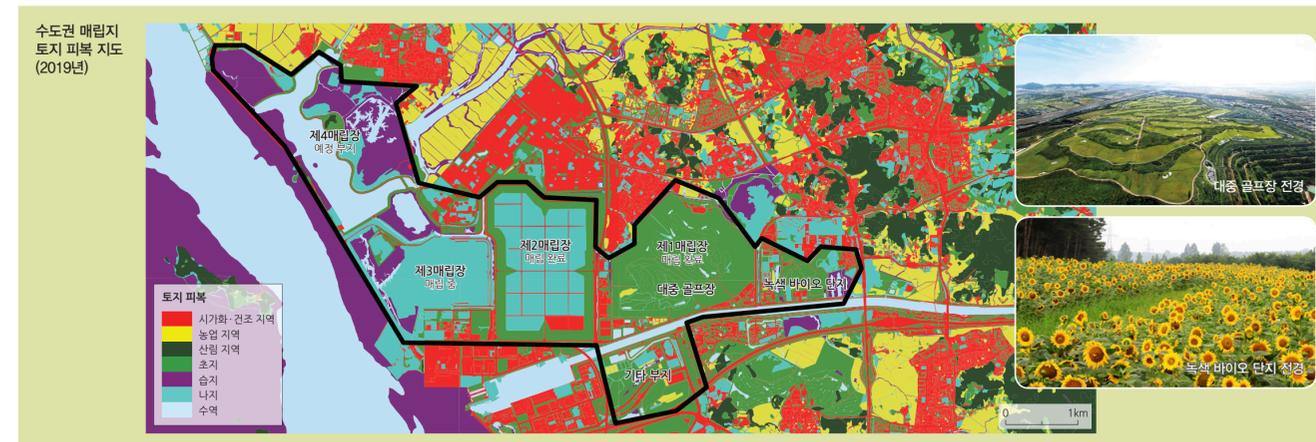


수도권 매립지 매립 모습



수도권 매립지 복토 모습

수도권 매립지는 난지도 매립지가 수용 한계에 다다르자 대체할 목적으로 1989년부터 조성되었고, 1992년 개장되었다. 총 4개의 매립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쓰레기 매립지이다. 인천광역시 서구 길단동에 위치한 제1·2·3매립장 중 제1매립장은 2000년 매립이 완료되었고, 현재는 제2매립장에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다. 제4매립장 예정지는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대곶면 대덕리에 있다. 원래 수도권 매립지는 2016년을 끝으로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며 쓰레기 종량제 시행, 분리수거 및 재활용의 활성화 등으로 매립되는 쓰레기의 양이 감소하여 매립할 공간에 여유가 생겨 매립 기한이 연장되었다. 2015년 6월 29일 서울·인천·경기 3개 지방 자치 단체가 수도권 매립지를 2025년까지 연장 사용하기로 합의하면서 2025년 이전에 자체적인 대체 쓰레기 처리장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매립이 완료된 제1매립지는 야생화 단지 및 체육공원으로 조성되어 지역 주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대구 골프장 전경



독서 바이오 단지 전경